



▶구약성서의 종교사◀

강승일(한남대) 구약성서와 인류학 - 공감주술에서 더글라스의 거룩함의 개념까지
구자용(충신대) 아웨, 동물의 주 -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강승일(한남대)

1. 서론

주지하다시피 구약성서는 대략 기원전 10세기에서 2세기경까지의 시기에 기록된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포함하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구약성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절대불변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여겨지며 그 본문 연구에 있어서 타학문의 방법론과 잣대를 감히 들이댈 수 없는 권위적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유럽에서 19세기 역사비평학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판독되어 출판되면서 여러 학문들에서 통용되던 이론과 방법론들이 구약성서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 용이해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학적 연구방법론의 적용이다. 때로는 기독교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론들조차도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

회의 복합적인 측면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곤 했다. 그 한 예로, 초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에서 과격한 막스의 유물론적 사관에 영향을 받은 농민혁명이론이 하나의 유력한 모델로 제시되기도 하였다.¹⁾ 또한 종교의 발전을 진화론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종교사회학적 견해를 따라,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역시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그리고 더욱 고차원적인 유일신교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발전사를 설명하는 통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언어학, 고고학, 고대 근동학, 신학, 철학 등 여러 인접학문들의 기초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인류학은 좀처럼 구약성서의 인접 학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국제성서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의 연례학회(Annual Meeting)에서 진행되는 무수히 많은 연구 분과들 중에도 인류학과 성서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는 분과는 아직 없을 정도이다.²⁾ 그 결과 사회학, 고고학, 종교학, 문학비평 방법론 등을 구약성서에 적용하는 것이 활발했던 데에 비하여 인류학 이론들의 활용도는 아직까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고는 구약성서 해석에 인류학적 통찰력을 강조했던 선행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인류학과 구약성서 연구의 차이점 및 인류학을 구약성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 등 방법론적 차원의 문제들을 논하고, 구약성서에 기록된 몇 가지 흥미로운 풍습들을 인류학에 가장 큰 족적을 남겼던 제임스 프레이저와 메리 더글라스의 이론들에 비추어 해석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어, 구약성서 해석에 있어 더 활발한 인류학적 연구 활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

1) 본래 이 이론의 주창자인 멘덴홀(G. E. Mendenhall)은 나중에 갓월드(N. K. Gottwald)가 자신의 주장을 막스 이론과 결합시켜 발전시킨 것에 대하여 불쾌해하였다.

2) 2015년 연례학회의 분과 목록은 http://www.sbl-site.org/meetings/Congresses_ProgramUnits.aspx?MeetingId=2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하고자 한다.

2. 구약성서에 대한 인류학 연구사³⁾

인류학은 특히 19세기 이후, 현대 유럽인들이 비서구권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류학적 연구 방법과 지식을 활용하여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그 선구적 역할을 한 사람은 로버트슨 스미스(W. Robertson Smith)일 것이다.⁴⁾ 그는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의 종교 풍습 등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의 대표작 『황금가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제임스 프레이저(James G. Frazer)는 세계 방방곡곡의 종교 의식 등에 대한 방대한 인류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간 보편의 종교의 사상과 신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프레이저는 그의 폭넓은 인류학적 지식을 성서에 적용하여 구약에 나오는 여러 민속학적 풍습들을 비교인류학적 차원에서 서술하였다.⁵⁾ 그가 이 책에 수집한 자료들은 상당 부분, 후에 개스터(Theodore H. Gaster)에 의하여 다시 활용되고 더 많은 자료와 함께 확대되었다.⁶⁾

3) 구약성서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사를 자세히 소개한 글은 다음의 책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Herbert F. Hahn, *Old Testament in Modern Research*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54), 44-82; Robert C. Culley, "Anthropology and Old Testament Studies: An Introductory Comment", *Semeia* 21 (1981), 1-5; Magne Sæbø(ed.), *Hebrew Bible/Old Testament: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III/2: The Twentieth Centur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GmbH & Co. KG, 2015), 83-90.

4)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First Series, The Fundamental Institutions*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889).

5) James G. Frazer, *Folk-lore in the Old Testament* (3 vols; London: Macmillan & Co., 1918).

6) Theodore H. Gaster, *Myth, Legend, and Custom in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 Row, 1969).

1960년대 이후, 성서학을 훈련받지 않은 인류학자들이 성경에 묘사된 신화나 종교에 대하여 인류학적 이해를 가지고 접근한 경우들이 있었다. 레비 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에드먼드 리치(Edmund Leach)는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⁷⁾ 피트-리버스(J. Pitt-Rivers)는 지중해 지역의 '존경'과 '수치'의 개념을 성경 기록의 배경에 깔린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해석학적 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⁸⁾ 그 누구보다도 구약학자들과 진지한 학문적인 대화를 하며 구약성서 연구에 적극적이었던 인류학자는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이다. 그녀는 구약성경의 제의와 율법을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였다. 저명한 구약학 저널인 *The Journal of Hebrew Scriptures*는 2008년 호의 거의 절반을 메리 더글라스의 성서학에 대한 공헌을 평가하고 그녀를 기념하는 논문들로 수록할 정도로 그녀의 인류학적 통찰력은 구약성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⁹⁾ 더글라스에 이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지나가기로 한다.

인류학자들이 구약성서 연구를 한 앞의 사례들과는 반대로, 구약학자로서 철저하게 인류학과 사회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학자는 갓월드(Norman K. Gottwald)이다. 이전 세대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재

구성에 있어서 성서 기록의 역사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으나, 갓월드는 인류학과 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구약성경의 큰 줄기에 묘사된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모델을 제시하였다.¹⁰⁾

이후로는 성서학자들이 방법론적 차원의 문제점들에 더 주의를 기하면서 인류학 자료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윌슨(Robert R. Wilson)은 성경에 나타난 족보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과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류학자들의 현지 조사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였다.¹¹⁾ 그는 특히 인류학 자료를 구약학 연구에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²⁾ 윌슨의 연구가 촉매제가 되어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언 현상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여러 학자들의 글이 한 데 모여 출판되었다.¹³⁾

로거슨(John W. Rogerson)은 사회 조직, 주술, 구조주의적 해석 등 사회 인류학자들의 구약성서 해석에 관한 여섯 개의 에세이를 모은 책을 발간하였으며,¹⁴⁾ 오버홀트(Thomas W. Overholt)의 세 편의 논문들은 문화인류학과 구약성서, 인류학을 통해 본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등의 주제를 분석하며 인류학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¹⁵⁾ 최근에는 국제 심포지움과 유럽 성서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Biblical

7) Edmund Leach, *Genesis as Myth, and Other Essays* (London: Jonathan Cape, 1969); Edmund Leach and D. Alan Aycock, *Structuralist Interpretations of Biblical My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8) J. Pitt-Rivers, *The Fate of Shechem or the Politics of Sex: Essays in the Anthropology of the Mediterrane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9) 메리 더글라스에 관하여 *The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8 (2008)에 게재된 논문들의 저자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Ronald Hendel and Saul M. Olyan, "Beyond Purity and Danger: Mary Douglas and the Hebrew Bible"; Ronald Hendel, "Mary Douglas and Anthropological Modernism"; Alfred Marx,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crificial Laws and the Other Laws in Leviticus 19"; Saul M. Olyan, "Mary Douglas's Holiness/Wholeness Paradigm: Its Potential for Insight and Its Limitations"; Rudiger Schmitt, "The Problem of Magic and Monotheism in the Book of Leviticus"; David P. Wright, "Deciphering a Definition: The Symtagmatic Structural Analysis of Ritual in the Hebrew Bible."

10) Norman K. Gottwald, *The Tribes of Ya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79); Idem,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11) Robert R. Wilson,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Idem,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12) Wilson, *윗글*(1977), 13-18; Idem, *윗글*(1980), 14-16.

13) Robert C. Culley and Thomas W. Overholt(eds.), *Semeia 21: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Old Testament Prophecy*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82).

14) John W. Rogerson, *Anthropology and the Old Testament* (Atlanta: John Knox Press, 1979).

15) Thomas W. Overholt, *Cultural Anthropology and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Augsburg Fortress, 1992).

Studies)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들이 묶여 책으로 출판되면서 구약성서학과 인류학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가고 있다.¹⁶⁾

3. 인류학 적용 방법론에 대한 문제

인류학을 구약성서 연구와 접목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구약성서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또는 구전 전승의 경우 그 이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문학, 종교 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학자가 현지조사를 통하여 참여관찰을 하고 민족지를 작성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인류학적 연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구약성경은 인류학의 민족지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성경의 기록은 오랜 구전 시기를 거쳐 내려온 전승들, 즉 기록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건들로 가득하고,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의도가 담긴 진술들로 넘쳐나며, 일차 저자의 기록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후대의 편집자들의 손을 거쳤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 그 내용이 기록된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성서학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인류학과 교류 없이 구약성경에 대한 신학적 접근 방식에 주로 의존해 왔다. 여기에는 성서의 영감성,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주변 종교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와 우가리트 문

헌들이 판독되고 출판되면서 성서와 이스라엘 종교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전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이제는 주변 문화와의 연속성 가운데에서 성서를 이해해야 한다는 학문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약성서에 기록된 여러 풍습들과 이야기들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인류학이다. 인류학은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 인간들이 지닌 보편적 정서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밝혀줄 수 있다. 비록 아주 오래 된 고대사회이긴 하지만, 성서에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종교와 사고 체계도 인류학적 통찰력으로 바라보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특정 풍습의 기저에 깔린 원리들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구약성경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주로 하는 윌슨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류학적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하여 정리를 한 바 있다. 그는 비교 자료들을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지적하였다.¹⁷⁾

(1) 구약성서와의 비교를 위한 자료들은 전문적인 학자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된 것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선교사와 같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편견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내용들이 담긴 보고서 등이 많았으므로, 인류학 자료는 20세기 이후의 전문 인류학자의 민족지만을 의존해야 한다. (2) 인류학 자료는 구약성서에 적용되기 이전에 그 문화의 맥락에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 특정 풍습을 위한 인류학 자료를 활용할 때, 그 풍습을 가진 다양한 사회들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해야 한다. (4) 성서해석자는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세워 놓은 이론적 틀에 얽매이지 말고 비교 자료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5) 성서 본문과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의 것만으로 비교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6) 구약성서 해석의 과정에서 성서 본문

16) Louise J. Lawrence & Mario I. Aguilar(eds.), *Anthropology and Biblical Studies: Avenues of Approach* (Scholcksterstraat, The Netherlands: Deo Publishing, 2004); Emanuel Pfoh(ed.), *Anthropology and the Bible: Critical Perspectives*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10). 국내에서는 홍성혁이 구약성서의 질병 이해를 위하여 인류학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했다.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 이해", 『구약논단』 제20집(2006년 4월), 124-146.

17) Wilson, 윌슨(1980), 14-16.

그 자체가 해석의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한다. 비교 자료는 가설을 세우는 데에만 사용되고, 그 가설은 다시 성서 본문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월슨이 제시한 방법론적 유의점들은 비교문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인류학 자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전문가적 자료를 이용하거나,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구약성서 본문에 적용하곤 하는 관행에 대하여 방법론적 신중함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인류학 이론 적용 사례

1) 제임스 프레이저의 공감주술

종종 현대 인류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할 만큼 인류학 연구에 영향력이 지대했던 제임스 프레이저(James G. Frazer)는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 『황금가지』에서 여러 문명과 문화권 및 부족들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풍습들과 의례들을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이 인류학의 고전에서 그는 주술을 크게 두 가지의 원리로 설명한다. 하나는 유사의 법칙에 따른 동종주술(homoeopathic magic),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접촉의 법칙에 따른 감염주술(contagious magic)이다. 그리고 이 둘 모두가 공감의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는 이 둘을 총칭하여 공감주술(sympathetic magic)이라고 부른다.¹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데,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거나 위해하려 할 때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방법 대신에 부두인형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인형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 결과가 그와 동일한 대상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바로 동종주술에 기반을 둔

것이다. 감염주술의 예는 타인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을 입수하여 그것들을 통하여 주술을 거는 사례가 대표적인데, 신체의 일부는 접촉해 있던 그 소유주에게서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는 기본적인 현지답사가 결여되었다는 방법론의 문제로부터 그의 ‘주술 -> 종교 -> 과학’의 진화론적 발전에 대한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주술을 공감의 원리로 풀어낸 그의 통찰력은 대단하며, 이 원리는 아직도 주술 연구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다.¹⁹⁾

그렇다면 프레이저의 공감주술의 이론이 구약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동종주술의 대표적인 예는 민수기 21장 4-9절에 나오는 모세의 뚝뱀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사람들을 물려 죽게 하셨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뚝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셨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뚝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다.

왜 하필 뚝뱀일까? 여기에는 물론 일종의 언어유희가 작용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뱀은 나하쉬(wnš)이고, 구리는 느호넷(wnšn)이다. 거의 동일한 자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은 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뱀의 형상이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바로 여기에 프레이저의 동종주술의 원리가 필요하다. 어떤 문제의 근원과 유사한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유사성의 원리를 통하여 보면, 뱀에

18) 제임스 프레이저, 『황금가지 제1권』 (박규태 역주), (서울: 을유문화사, 2005), 70-73. 원제는 Frazer, James G., *The Golden Bough*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22).

19) 프레이저에 대한 비판은 Edmund Leach, "Golden Bough or Gilded Twig", *Daedalus* 90 (1961), 371-399; 우환식, "비트겐슈타인과 제레적 행위 -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35호(2005년 3월), 51-69; 대니얼 팰스, 『종교에 대한 여덟 가지 이론들』 (조병련/전중현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91-94 참고. 원제는 Pals, Daniel L., *Eight Theories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물린 자를 뱀의 형상을 통하여 살려낸다는 본문의 이야기가 명쾌하게 이해가 된다.²⁰⁾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바로 그 유명한 아사셀 염소 의식이다.²¹⁾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 날의 의식은 제사장과 성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날에는 아론을 위한 속죄제로 황소를 드리는 것 외에도 두 마리의 염소를 바치게 되어 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 두 염소들 중 한 마리는 야훼께 바쳐지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된 염소에게 전이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간다. 대속죄일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죄를 바깥으로 옮겨서 정화하곤 했다.

그런데 대체 아사셀이 누구, 또는 무엇이기에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레 16:10) 보낸다는 것일까? 아사셀이라는 말의 어원에 관하여 몇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우선 아사셀은 “떠나가는 염소”라는 의미의 에스 아잘(אֵס אַזַּל)의 축약형이라는 견해이다. 칠십인역 저자들이 아마도 아사셀을 이러한 의미로 이해했던 듯하다.²²⁾ 둘째, 아사셀은 지형학적 명칭으로 절벽과 같은 “가파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다.²³⁾ 셋째, 아사셀(אֵס אַזַּל)에서 자음 치환이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여 아사셀은 “홍포한 신”(אֵס אַזַּל)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²⁴⁾ 넷째, 아사셀을 악이 인격화된 존재로 보려는 시도도 있다. 에녹서에서 아사셀

이 타락한 천사들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²⁵⁾

이 네 번째 주장과 유사한 맥락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아사셀을 사막에 거주하는 귀신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다.²⁶⁾ 레위기 16장 8절에서 아사셀이 야훼와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아사셀도 일종의 신적인 존재였음을 암시한다. 또한 광야는 일반적으로 귀신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으므로, 아사셀도 귀신의 일종이었을 것이다(이사야 13:21-22; 34:11-15).²⁷⁾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염소에게 제사를 바쳤다는 레위기 17장 7절의 언급으로 미루어보아 아사셀은 아마도 귀신 중에서도 염소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사셀은 다른 아닌 바로 이 숫염소 귀신의 이름일 것이다. 광야에 진출을 치고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염소 귀신인 아사셀이 자신들의 진영에 와서 해코지를 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사셀을 달래기 위하여 그에게 염소를 바쳤던 것이다. 염소 귀신의 문제를 염소로 해결하는 풍습은 프레이저의 동종주술의 이론을 잘 반영하는 예가 된다. 이와 같이 아사셀 의식은 아마도 매우 오래된 풍습으로 본래 염소 귀신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대 이스라엘인들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신학적 의미를 덧붙여 재해석하여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공동체 내부에서 외부로 몰아내는 일종의 속죄와 정화의식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 고대 이집트, 팔레스틴, 그리스, 페니키아 등지에서 뱀은 공감주술적 의미와 치료의 상징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Jacob Milgrom,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459-460을 보라.

21) 아사셀 의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왕대일, “아사셀 염소와 속죄의 날(레 16:6-10)”, 『구약논단』 제19집 (2005년 12월), 10-30을 참조하라.

22) Jacob Milgrom,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1991), 1020.

23) G. R. Driver, “Three Technical Terms in the Pentateuch”, *Journal of Semitic Studies* 1 (1956), 97-98.

24) Milgrom, *숫글*(1991), 1021.

25) Charles L. Feinberg, “The Scapegoat of the Leviticus Sixteen”, *Bibliotheca Sacra* 115 (1958), 328.

26) 밀그롬은 그의 방대한 기념비적인 레위기 주석에서 아사셀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 그 자신은 아사셀이 귀신의 이름이라는 견해를 따른다. 하지만 그는 아사셀 염소 의식을 공감주술의 원리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는 대신 이 의식을 고대 근동에서 흔히 행해지던 부정함이나 악을 제거하는 의식(elimination rites)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Milgrom, *숫글*(1991), 1020-1021, 1071-1079. 이 의식에 대하여는 David P. Wright, *The Disposal of Impurity: Elimination Rites in the Bible and in Hittite and Mesopotamian Literature* (SBLDS 101; Atlanta: Scholars Press, 1987)을 보라.

27) David P. Wright, “Azazel”, *Anchor Bible Dictionary* I: 536.

앞의 두 사례보다는 명확하지 않지만 공감주술의 원리로 풀어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다. 특히 이 경우는 결정하기 어려운 본문 전승의 문제를 판단하는 데 공감주술 개념의 활용이 약간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으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상을 넘어뜨린 것 이외에도 아스돗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의 재앙(새번역; 개역개정판에는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다(삼상 5:6). 그들은 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또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지만, 하나님은 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역시 악성 종양으로 그 곳 사람들을 치셨다(삼상 5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신에게 속건제물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다섯 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다섯 개를 바치기로 했다. 성경은 이 속건제물이 다섯 개씩인 이유를 블레셋 다섯 방백, 즉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위하여 각각 다섯 개씩 바쳐야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다(삼상 6:17).

그런데 왜 하필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과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이 필요했던 것일까? 금은 신의 지위와 거룩함에 가장 적합한 재료이다.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떠올리면 된다. 악성 종양의 재앙을 모면하기 위하여 악성 종양의 형상을 만들어 사용한 것에는 ‘어떠한 문제를 그와 동일한 유형의 것으로 해결한다’는 공감주술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금 쥐의 형상은 왜 바쳐진 것일까? 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꺼리는 동물이므로, 당연히 하나님께도 바쳐지기에 적합하지 않다(레 11:29).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쥐의 형상이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제물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래서 이를 쥐를 사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히타이트의 제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⁸⁾

본 논문의 주제와의 관련성에서 보면, 사무엘상 5-6장의 금 쥐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고대 근동의 어떠한 제의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 무엇이나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 학자들은 금 쥐의 형상을 만든 것은 악성 종양이 쥐가 매개체가 되어 확산된 질병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질병을 구체적으로 들쥐 등이 매개해서 일으키는 선페스트(bubonic plague)의 일종이라고 본다.²⁹⁾

하지만 아쉽게도 마소라 본문에는 이 질병이 쥐로 인하여 확산되었다는 정보를 줄 만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성경은 이 질병이 “여호와와 손”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분명히 말한다(삼상 5:6,9). 그런데 5장 6절의 칠십인역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 구절은 전승 과정에서 본문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마소라 본문에는 없지만, 70인역에는 6절 마지막에 *καὶ μέσσω τῆς χώρας αὐτῆς ἀνεφύησαν μύες καὶ ἐγένετο σύγχυσις θανάτου μεγάλη ἐν τῇ πόλει* (“그리고 그들의 땅 가운데 쥐들이 나타났고, 그 도시에는 큰 죽음의 혼란이 있었다”)가 있는 것이다.³⁰⁾

일부 학자들은 쥐를 언급하고 있는 70인역의 이 부분을 6장 5, 11절에 금 쥐가 등장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후대의 첨가로 본다. 그러나 오히려 70인역에 나오는 내용이 본래 원문에 있었으나 동일한 어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탓에 서기관의 실수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28) John B. Geyer, "Mice and Rites in 1 Samuel v-vi", *Vetus Testamentum* 31 (1981), 293-304.

29) 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10; Dallas: Word Books, 1998)의 5장 번역과 주석을 참고하라.

30) Henry P. Smit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Edinburgh: T & T Clark, 1899), 41.

있다.³¹⁾ 70인역에 남아 있는 부분을 원문의 일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마소라 본문에 있는 것만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본문비평적 관점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본문비평가는 짧은 본문을 우선시한다는 본문비평의 원칙을 따라 마소라 텍스트를 선호할 수도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에는 마소라 본문의 사무엘서 필경사가 중자탈락(haplography)의 오류를 무수히 많이 범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엘서 본문에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³²⁾

그렇다면 다시 공감주술 원리로 되돌아가 보자. 사무엘상 6장에는 블레셋 땅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 종양 형상뿐 아니라, 금 쥐의 형상도 바쳐야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실은 종양과 마찬가지로 쥐의 창궐도 그 자체가 하나의 재앙으로 여겨졌음을 암시한다. 공감주술의 개념에 따라 금 종양 형상은 악성 종양의 재앙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 쥐의 형상은 쥐의 창궐의 재앙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6장 17-18절은 금 종양과 금 쥐의 의미를 각각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5장에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재앙은 종양과 쥐, 두 종류의 차원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5장 6절을 종양의 재앙만 말하고 있는 마소라 본문이 아닌, 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 70인역을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³³⁾

31) G. R. Driver, "The Plague of the Philistines (1 Samuel v. 6-vi, 16)",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1/2 (1950), 50-52; Hans W. Hertzberg, *I & II Samuel: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51; 특히 Klein, 윗글, 5장 6절의 번역과 Notes를 참고하라.

32)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중자탈락의 사례들은 P. Kyle McCarter,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 Commentary* (Anchor Bible 8;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Idem, *I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 Commentary* (Anchor Bible 8; Garden City, NY: Doubleday, 1984)를 참조하라.

33) 본문비평의 권위자 중 한 명인 맥카터는 칠십인경 루시안본(LXXL)이 6절을 가장 정확히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And the hand of Yahweh was heavy upon the Ashdodites. He ravaged

2) 메리 더글라스의 거룩함의 개념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대표적인 여류 인류학자로서 사회인류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구약성경의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타나는 부정함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성서학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³⁴⁾ 특히 그녀의 책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 of Pollution and Taboo*는 제의적 부정함, 그리고 그것의 위험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녀는 특히 거룩함을 완전한 상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레위기의 여러 규정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³⁵⁾

그렇다면, 더글라스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거룩함의 특성들을 파악해 보자. 더글라스에 의하면, 두 영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점에 있는 것은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것이 된다.³⁶⁾ 특히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만날 때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신의 영역인 지성소에 허락받지 아니한 자, 또는 허락받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레 16:2)

them and afflicted them with tumors—both Ashdod and its environs. He brought up mice upon them, and they swarmed in their ships. Then mice went up into their land, and there was a mortal panic in the city." P. Kyle McCarter,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 Commentary* (Anchor Bible 8;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117, 120.

34) Mary Douglas,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Idem, *In the Wilderness: The Doctrine of Defilement in the Book of Numbe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Idem, *Jacob's Tears: The Priestly Work of Reconcili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5)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 of Pollution and Taboo* (New York: Routledge, 2002), 51-71.

36) 이에 대하여는 윗글, 117-140을 보라.

이렇게 신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념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거룩한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 성막과 신전의 세 영역은 거룩함의 등급에 따라 그 이름이 각각 ‘지성소’(출 26:33, 민 4:4, 왕상 6:5,16,19), ‘성소’(출 26:33, 29:30, 레 6:30), 그리고 종종 ‘거룩한 곳’(출 29:31, 레 6:16)이라고도 불리는 ‘뜰’로 구분된다. 본 논고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으나, 각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등급, 각 영역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재료, 각 영역에 사용되는 천의 색깔 등 모든 것이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³⁷⁾

필자는 더글라스의 통찰력을 빌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삼하 6장).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다윗과 수행원들은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수레에 실어 가져오고 있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모는 소들이 뛰므로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웃사를 쳐서 죽였다.

소중한 언약궤가 깨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웃사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성경은 그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삼하 6:7). 독자를 당황케 만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상태는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금지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cf. 레 5:2; 7:19-21). 부정한 성적 관계

37) 더 자세한 논의는 Menahem Haran, *Temples and Temple-Service in Ancient Israel: An Inquiry into the Character of Cult Phenomena and the Historical Setting of the Priestly Scho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75-188; Philip P. Jenson,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56-209를 참고하라.

(레 18, 21장), 시체와의 접촉(레 21:11; 22:8), 부정한 음식(레 11장) 등에 의하여 사람이 부정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정한 것은 그것과 접촉하는 사람에게 옮겨가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부정함이 옮겨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더러운 물건을 손으로 만지면 손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경험 말이다. 더글라스는 거룩함과 부정함을 서로 연관되어 있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사례들과 다른 인류학자들의 견해를 모아서 제시한 바 있다.³⁸⁾

필자는 이에 착안하여 부정함이 옮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룩함도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구약성경의 몇 가지 예를 통하여 보고자 한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출 29:37)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출 30:26-29)

이 두 구절들에 의하면, 성막에 있는 제단과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각종 기구들은 거룩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도 역시 거룩해진다는 점이다. 제단과 기구들의 거룩함이 그것과 접촉하는 것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에스겔의 다음의 생각은 거룩함이 그것에 접촉하는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개념을 반영한다.

38) Douglas, *뵈글*(2002), 9-12.

그들이 바깥쪽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겔 44:19)

에스겔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 백성이 와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지면 그 의복의 거룩함이 넘어가서 그 사람도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지나갈 때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병이 낫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기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막 5:30). 이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치유의 능력과 파워가 그의 옷자락을 통해서도 그것을 만진 자에게 넘어갈 수 있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언약궤에 손을 대어 죽음을 맞이한 옷사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옷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신상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언약궤, 또는 법궤는 성막이나 신전의 지성소에 모셔두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법궤는 신적인 파워로 가득차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과는 구별되는 분이며, 그 거룩함의 파워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출 33:20).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신의 파워가 담긴 거룩한 물건인 법궤에 옷사가 손을 대는 순간, 그 파워는 옷사에게로 전달되어 넘어간다. 엄청난 거룩함의 파워가 옷사에게로 넘어가면서 그 파워를 감당할 수 없는 옷사를 압도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대제사장도 일년에 단 하루, 그것도 각종 의복과 의식들을 병행하여야만 법궤와 하나님이 계

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준비와 자격을 갖추지 않은 평민인 옷사가 감히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허락되지 않은 행위인 것이다. 법궤를 보호하려던 옷사의 행동이 뭐가 문제냐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옷사의 잘못된 행동에 진노하셨다는 말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삼하 6:7).

5. 사례 연구 결과 및 결론

앞에서 프레이저의 공감주술 이론과 더글라스의 거룩의 개념을 응용하여 구약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특이한 이야기들의 기저에 깔린 원리들을 파악해 보았다. 모세의 낫뱀 이야기(민 21장),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 의식(레 16장), 다섯 금 중앙과 금 쥐의 형상 에피소드(삼상 5-6장)를 공감주술 개념을 바탕으로 해석했으며,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중에 옷사가 당한 불합리한 듯한 죽음의 원인을 더글라스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들을 뒤집어 확장, 응용하여 분석했다. 위의 인류학 이론 적용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확을 다음의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1) 아주 오래 된 민속적인 풍습이 구약성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련하여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 제의로 재해석되기도 한다.

인류학적 접근에서 주의할 점은 보편적인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 문화만이 지닌 특수한 부분들을 희생시키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구약성서와 같이 구전 전승과 기록 연대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복잡한 후대의 편집과 정경화 과정을 거친 문서는 현재의 기록 안에 숨겨져 있는 층을 구별해서 분석해야할 때가 많다.

앞에서 살펴본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 의식이 그 한 예다. 이 의식은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핵심적인 제의로서의 기능을 했다. 또한 아사셀 염소는 기독교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해석될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분석한대로 이스라엘의 광야 전승에 편입되기 전에 이 의식은 염소 귀신 아사셀이 물고 울지도 모를 재앙을 공감주술의 원리를 따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고대 셈족의 민간 풍습이었을 것이다. 구약성서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이렇게 신학적 텍스트의 근저에 놓인 풍습을 발견해 내는 것을 가능케 한다.

2) 성서 속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보편적 삶의 양식, 상징체계, 종교적 관념 등을 반영한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찌 들으면 당연한 말인 듯하지만, 구약성서를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인정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혹자는 구약성서의 기록들에 보편적 주술 개념인 공감주술 사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불편해 할지도 모른다. 사실 일반적으로 성서와 주술은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여겨진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 속의 여러 문제들을 주술적 행위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각종 주술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하면 안 되는 이방인들의 풍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레 20:27, 신 7:1-5, 18:9-12, 겔 21:21).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실상은 성경의 규제와는 판판이었다. 신명기 18장 10-11절은 각종 주술사와 점술가들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위기가 닥치자 영매를 통하여 죽은 사무엘의 혼과 신접을 시도하기도 하였고(삼상 28장),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

를 신임하”였으며(왕하 21:6), 백성들 사이에서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의지하는 주술 행위가 드물지 않게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사 8:19, cf. 사 47:12-13, 램 27:9, 미 5:12). 그러므로 구약성경에 주술적 풍습들과 그 배경적 원리가 반영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구약성서는 좁게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기록이며, 조금 넓게는 고대 근동 세계의 일부분으로 형성되었으나,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결국 인간 경험과 정신의 산물의 하나이다. 문화는 각 지역과 시대에 따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모든 문화를 가로질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삶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 신적인 힘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 보편적 세계관, 사고방식의 패턴들은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일반적인 이해이다.

3) 구약성서 연구는 때로는 고대 근동이라는 해석학적 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성서해석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은 성서의 영감성, 이스라엘 종교의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별되어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고대 근동 문헌들이 번역되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세계와의 비교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들 사이의 유사성과 연속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현재까지는 구약성서 연구가 대체로 고대 근동의 지리, 시대, 역사적 틀 속에서 비교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 이 틀을 벗어나 인류 보편적 종교적 인식, 풍습 등과의 연계성을 파헤쳐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구약성서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성서의 이야기들을 고대 근동 세계의 좁은 틀 안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인류학자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세계 여러 다양한 문화에서 각

중 종교적 풍습과 제의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왔다. 이 자료들을 분석한 내용과 이론들이 아직 그 의미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구약성서의 많은 풍습과 이야기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거리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논문이 이러한 학문적 움직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6. 참고문헌

- 대니얼 펄스, 「종교에 대한 여덟 가지 이론들」 (조병련/전중현 옮김),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원제는 Pals, Daniel L., *Eight Theories of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왕대일, 「아사셀 염소와 속죄의 날(레 16:6-10)」, 「구약논단」 제19집 (2005년 12월), 10-30.
- 우환식, 「비트겐슈타인과 제례적 행위 - 플레이어의 『황금가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35호(2005년 3월), 51-69.
- 제임스 프레이저, 「황금가지 제1권」 (박규태 역주), (서울: 을유문화사, 2005). 원제는 Frazer, James G., *The Golden Bough*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22).
-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 이해」, 「구약논단」 제20집(2006년 4월), 124-146.
- Culley, Robert C., "Anthropology and Old Testament Studies: An Introductory Comment," *Semeia* 21 (1981), 1-5.
- Douglas, Mary,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In the Wilderness: The Doctrine of Defilement in the Book of Numbe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 of Pollution and Taboo* (New York: Routledge, 2002).
- _____, *Jacob's Tears: The Priestly Work of Reconcili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Driver, G. R., "The Plague of the Philistines (1 Samuel v, 6-vi, 16)",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1/2 (1950), 50-52
- _____, "Three Technical Terms in the Pentateuch", *Journal of Semitic Studies* 1 (1956), 97-98.
- Feinberg, Charles L., "The Scapegoat of the Leviticus Sixteen", *Bibliotheca Sacra* 115 (1958), 320-333.
- Frazer, James G., *Folk-lore in the Old Testament* (3 vols; London: Macmillan & Co., 1918).
- Gaster, Theodore H., *Myth, Legend, and Custom in the Old Testament* (New York: Harper & Row, 1969).
- Geyer, John B., "Mice and Rites in 1 Samuel v-vi", *Vetus Testamentum* 31 (1981), 293-304.
- Gottwald, Norman K., *The Tribes of Ya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79).
- _____,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roduc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 Hahn, Herbert F., *Old Testament in Modern Research*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54).
- Haran, Menahem, *Temples and Temple-Service in Ancient Is-*

- rael: An Inquiry into the Character of Cult Phenomena and the Historical Setting of the Priestly Scho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Hertzberg, Hans W., *I & II Samuel: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 Jenson, Philip P., *Graded Holiness: A Key to the Priestly Conception of the Worl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Klein, Ralph W.,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10; Dallas: Word Books, 1998).
- Lawrence, Louise J. and Mario I. Aguilar(eds.), *Anthropology and Biblical Studies: Avenues of Approach* (Scholeksterstraat, The Netherlands: Deo Publishing, 2004).
- Leach, Edmund, "Golden Bough or Gilded Twig", *Daedalus* 90 (1961), 371-399.
- _____, *Genesis as Myth, and Other Essays* (London: Jonathan Cape, 1969).
- Leach, Edmund and D. Alan Aycock, *Structuralist Interpretations of Biblical My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McCarter, P. Kyle,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 Commentary* (Anchor Bible 8;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 Milgrom, Jacob, *Number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_____,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1991).
- Overholt, Thomas W., *Cultural Anthropology and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Augsburg Fortress, 1992).
- Pfloh, Emanuel(ed.), *Anthropology and the Bible: Critical Perspectives* (Piscataway, NJ: Gorgias Press, 2010).
- Pitt-Rivers, J., *The Fate of Shechem or the Politics of Sex: Essays in the Anthropology of the Mediterrane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Rogerson, John W., *Anthropology and the Old Testament* (Atlanta: John Knox Press, 1979).
- Sæbø, Magne(ed.), *Hebrew Bible/Old Testament: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III/2: The Twentieth Century*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GmbH & Co. KG, 2015).
- Smith, Henry P.,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Edinburgh: T & T Clark, 1899).
- Smith, W. Robertson,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First Series, The Fundamental Institutions*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889).
- Wilson, Robert R., *Genealogy and History in the Biblical Worl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7).
- _____,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 Wright, David P., *The Disposal of Impurity: Elimination Rites in the Bible and in Hittite and Mesopotamian Literature* (SBLDS 101; Atlanta: Scholars Press, 1987).

검색어

인류학

제임스 프레이저

메리 더글라스

공감주술

거룩함

Anthropology and the Old Testament:
From Frazer's Sympathetic Magic to Douglas's Concept of
Purity

Seung-Il Kang Ph.D.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Hannam University

With the emergence of so-called historical criticism of the Bible in the 19th century, the theories and methodologies used in the social sciences began to be applied to the Old Testament. Although it has collaborated with other disciplines, such as Semitic linguistics, archaeology,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theology, and philosophy, the community of anthropologists has rarely engaged with biblical studies.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history of scholarship of the anthro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from Robertson Smith's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First Series, The

Fundamental Institutions, to some recent series of collections of essays. Then it discusses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use of anthropological data for biblical studies.

As a case study, it applies two well-known anthropological theories to the interpretation of some enigmatic rites and anecdotes in the Old Testament: one is the theory of sympathetic magic put forward by James G. Frazer in his magnum opus, *The Golden Bough*, and the other is Mary Douglas'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urity/holiness. The incident of the bronze serpent made by Moses (Num 21), the scapegoat ritual (Lev 16), and the story of five golden tumors and five golden mice (1 Sam 5-6) are interpreted in light of the theory of sympathetic magic. And the concept of contagious holiness, inspired by Mary Douglas's contagious impurity, is the ke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tory of Uzzah's sudden death (2 Sam 6).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1) some rituals in the Old Testament may have originated from old magical practices; (2) stories in the Bible reflect general features of human social life, symbol systems, and religious concepts; and (3)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hould not remai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but it should engage in dialogue with findings from anthropological inquiries.

Keywords

anthropology
James Frazer

www.kci.go.kr

Mary Douglas
sympathetic magic
holiness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



구자용(총신대)

1. 들어가는 말

신학적 동물학이란 일반 동물학뿐 아니라 신학에서도 낯선 개념이다. 이것이 일반 동물학과 구별되는 점은 아마도 그 연구 대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학적 동물학이란 간단히 말해서 신과 인간, 그리고 동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와 동물이 차지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듯 동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성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동물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관계성은 또 어떻게 설명되는가? 슈로어(S. Schroer)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의 동물에 대한 관계성이 한 면만 강조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일면 왜곡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